

##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전 현 주  
(계명대)

### I. 서론

번역학은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가 1976년 루벵 학술대회에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명칭을 채택하자는 제안(Bassnett 2002: 11) 이후 학문과 이론의 집목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번역학을 도입하여 세계의 번역학자들과 동시대를 공유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여러 대학의 번역학 전공 관련 학과 설치를 비롯하여 학부 및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번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신생학문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번역비평과 관련하여 관련 학술단체와 학술지 발간의 결실이 이루어져 한국번역학회의 『번역학연구』와 한국비평학회의 『번역비평』 등을 통하여 번역학의 이론과 실천 분야의 우수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영미문학연구회의 『안과밖』의 <번역을 짚어본다>와 『교수신문』의 <고전번역비평> 코너 등은 번역 작품에 대한 비평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

학번역금고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을 주축으로 ‘번역현황 통계’ 및 ‘번역자 색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과 우리나라의 번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김병철의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연구 上·下』와 우리나라 작품의 외국어 출판현황과 특징을 심도있게 분석한 유럽문화정보센터의 『한국문학의 외국어번역』 등이 있다. 또한 번역비평 관련 단행본으로는 이재호의 『문화의 오역』, 강대진의 『잔혹한 책읽기』, 유영난의 『번역이란 무엇인가?』,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의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우리나라 번역 출판물의 양적인 팽창 속도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국내 번역비평 이론의 흐름에 관하여 『번역학연구』에서 김정우(2005: 47)는 “국내 번역학 연구에서 비평에 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단순히 오역사례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역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보다 나은 번역물 생산의 피드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번역비평 텍스트를 번역물 생산의 피드백으로 활용하려면 지금까지 생산된 번역비평 텍스트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번역 텍스트가 번역가의 번역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되듯 비평가의 비평전략을 파악하려면 번역비평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여러 번역비평 텍스트를 형식과 내용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호 비교하여,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acceptability)<sup>1)</sup>을 검증하는 방식과 과정 및 현황을 파악하여 비평가의 비평전략을 진단한 후 번역비평 텍스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번역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번역물 생산의 피드백으로 활용코자 한다.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번역비평의 목적은 번역수준을 증진시키고, 번역가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며, 특별한 시대 및 주제와 관련된 번역에 관한 논의를 조명하고, 탁월한 작가와 번역가의 작품 해석에 도움을 주며, ST와 TT 사이의 의미론적,

1)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이란 ‘번역 텍스트의 내적·외적 신뢰성의 확보’를 의미한다. (전현주 2006: 180)

문법적 차이에 관한 비평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Newmark 1981: 181) 그러나 실제로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기준과 일관성이 없음을 물론 비평의 기본적인 요건이 누락되거나 간과되어 비평 텍스트로서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또한 비체계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아마추어적 번역비평은 물론, 번역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나 논의도 없이 모국어로 씌어진 원작처럼 번역작품을 다룬 번역비평 텍스트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원저자나 원작만을 중시하여 “몇 개의 오류를 제외하면 잘된 번역이라 언급하거나 불행하게도 번역가의 어휘선택이 원저자의 문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김효중 1998: 253-254)는 등의 단편적인 언급으로 작품과 번역가의 위상을 통째로 폄하시키는 경우도 있다. 물론 비평이란 개념 자체가 불가피하게 부정(不正)의 의미를 포괄하지만 “번역비평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98% 이상이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이며, 긍정적인 지적은 거의 없다.”(이상원 2006: 172) 이처럼 부정성을 내포하는 번역비평에서 특히 “‘오역’을 논할 때의 서술방식과 번역비평을 할 때의 ‘수사양식’은 ‘소통’보다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을 내포”(전성기 2007: 37)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번역비평의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비평은 ‘비평의 기술을 알려주는 비평’이다. 또한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체가 혼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갖춘 번역비평 텍스트의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한시라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지침이 마련되면 기존의 번역비평 텍스트에 대한 검증은 물론 비평 대상 번역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비평가는 물론 일반독자도 그 기준과 지침에 따라 번역 텍스트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활발한 번역비평 활동은 번역 텍스트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것은 물론 번역가 역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번역에 임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번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번역비평의 형식과 내용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번역비평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물론 비평가에 따라 분석대상 텍스트를 비평하는 방식과 관점이 다양하게 표출되지만 번역비평 시 간과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번역비

평 텍스트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좁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번역학자나 번역가 그리고 독자들도 번역비평에 참여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층 타당성과 실용성을 갖춘 이론으로서 기존의 번역비평 이론과 차별화를 기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번역비평의 형식과 내용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한다.

## 1.2 연구방법 및 대상

“‘번역비평’이란 ‘비평가가 주관적인 안목과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고 ST와 TT를 동시에 고려하여 작가나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중의 작업’이다.”(전현주 2007: 6) 따라서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론화하려면 기존의 번역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번역가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번역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이론화 작업을 하므로 번역행위는 곧 이론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번역행위가 실현된 번역 텍스트는 번역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환경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번역현상을 토대로 공통적인 특성을 통합하면 이론적인 고찰이 가능하다.”(Delisle 1999: 52) 그러므로 텍스트를 둘러싼 내·외적인 다양한 번역현상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번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징을 일반화하고 번역과정을 객관화시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면 다양한 번역환경에 대입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축적된 연구결과를 실제 번역작업에 적용하면 번역의 품질이 개선되므로 번역에 관계하는 모든 인적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며 결국 번역작품에 대한 ‘용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용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로 기존의 번역비평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텍스트는 비평의 속성상 완전히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번역작품의 ‘용인성’을 부여하는 기준과 원칙 등 비평가들의 보편적인 비평전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보편성을 토대로 번역비평의 현황을 점검한 후 번역작품이 용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규범화하여 향후 번역활동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번역비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번역비평은 출판 번역물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내·외적인 용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번역평가’와 ‘검토’ 행위로 ‘반드시 ST와 TT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출판 번역물은 출판된 모든 번역 텍스트를 포괄하며 상응하는 원천 텍스트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리고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하여 번역비평의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번역 텍스트의 형식을 분류하는 양식은 서지학에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서평’분류 방식(김상호 1994, 2002)과 ST : TT의 비교 방식(Munday 2001, 박여성 2002)을 일부 원용한다. 다음으로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 분석은 여러 가지 번역학 이론을 적용하였다. 특히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는 틀은 주로 투리(Toury 1995)의 ST와 TT의 비평방식과 기술 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방식을 참고하였다. 번역비평 텍스트에서 비평가들의 비평전략을 평가할 때 평가적 요소를 텍스트의 내·외적인 용인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동기 역시 투리의 번역에 대한 ‘용인성’이론(1995)을 원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분석대상 번역비평 텍스트의 선정이유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정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비평가는 물론 비평대상 번역 텍스트의 번역가와 서지목록 등이 제시된 실명비평 번역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비평가와 비평매체의 전문성, 지속성 그리고 현재성도 고려하였다. 셋째, 문학, 비문학 비평 텍스트는 물론 번역사(翻譯史)와 번역현황 통계 등을 다룬 비평 텍스트를 두루 포괄한다. 넷째, 목표언어는 한국어(혹은 영어)이며, 원천언어는 문학장르는 영어(혹은 한국어)에 국한한 반면 비문학 장르는 영어 외에 독일어, 희랍어, 이탈리아어 등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번역비평 텍스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영난의 『번역이란 무엇인가?』, 『안과박』의 <번역을 짚어본다>에 게재된 19개의 문학 번역비평 텍스트, 『교수신문』의 <최고의 고전번역을 찾아서>에 소개된 12개의 비문학 번역비평 텍스트, 이재호의 『문화의 오역』, 강재진의 『잔혹한 책읽기』, 김병철의 『한국현대번역문학사 연구 上·下』, 그리고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등을 분석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비평 텍스트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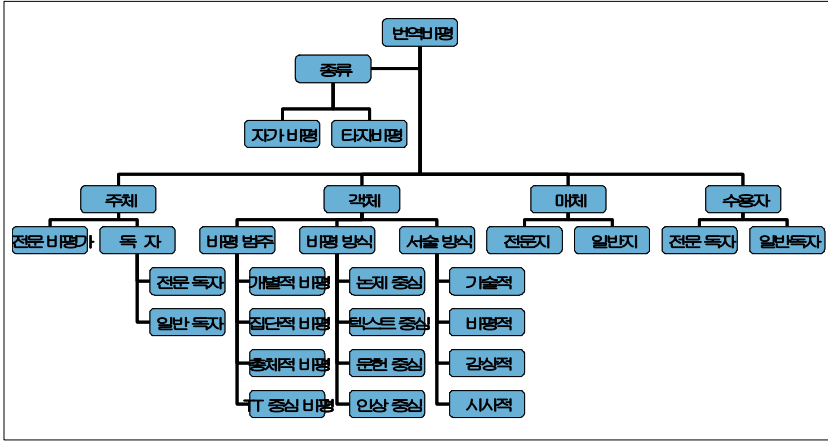
## II.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본 장에서는 여러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의 패러다임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은 번역비평 텍스트의 생산자로부터 수용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계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의 기반이 된다. 형식과 내용은 불가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논의해야 할 대상이지만 논의의 전개상 형식과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다루게 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 2.1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

‘형식’(frame)은 ‘여러 부분들이 배열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양태’로 전체의 모습을 조망할 때 효용가치가 높은 기제이다. 분석대상 번역비평 텍스트를 ‘서평’분류 방식(김상호 1994, 2002)과 ST : TT의 비교 방식(Munday 2001, 박여성 2002)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장르를 막론하고 비평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번역비평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인 관련성을 갖고 번역비평 텍스트의 틀을 구성하고 있었다. 필자는 번역비평 텍스트의 생성과정에 관계하는 요소들을 특히 비평의 주체와 객체는 물론 비평의 매체와 수용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2-1>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



2.1.1 번역비평 텍스트의 종류

번역비평 텍스트는 앞의 <표 2-1>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에서 보다시피 ‘자가 비평’과 ‘타자 비평’으로 나뉘어 진다. ‘자가 비평’(self-criticism)이란 ‘작가(번역가) 스스로 자신의 번역과정을 기록 관찰하며 번역의 제한상을 논의하는 비평’으로, ‘자가 비평’의 결과물을 ‘자가 번역비평 텍스트’라 명명하였다. 투리(1995: 73)는 “자가 비평은 번역가가 용인성을 고려하여 번역본의 단계적인 교정과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번역물은 궁극적으로 출간된 완성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교정과 문체 조정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야말로 번역가가 번역과정에서 적용한 복잡한 번역전략과 언어학적-문예학적-기호학적 처리의 원칙 및 취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원(原) 자료로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박여성 2002: 55) 하지만 연구 시 단계별 번역본을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번역가 유영난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1』의 영역과정을 자기관찰 기록의 형식으로 체계화한 드문 사례가 있다.

2) 유영난. 1991.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1』 영역을 중심으로,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한편 ‘타자 비평’(others'-criticism)이란 자가 비평과 달리 ‘비평대상 작품이 작가(번역가)나 비평가 자신의 작품이 아닌 타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타자 비평의 결과물을 ‘타자 번역비평 텍스트’라 명명한다. 번역비평 텍스트는 통상적으로 타자 비평 텍스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도 계속되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2.1.2 번역비평의 주체

번역비평의 주체는 비평가의 전문성에 따라 ‘전문비평가’와 ‘독자’로 나뉜다. ‘독자’는 다시 ‘전문독자’와 ‘일반독자’로 나뉜다. ‘일반독자’는 번역비평의 기본 전체인 ST와 TT의 비교 분석을 행하는 대신 주로 TT 중심의 비평을 하기 때문에 전문독자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문비평가는 ‘자가 비평’과 ‘타자 비평’을 모두 행한다. 비평의 주체로서 전문비평가는 번역비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의 활동과 활동내용을 보여주는 번역비평 텍스트는 번역비평의 문화를 선도하는 지표가 된다. 분석대상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장르를 막론하고 “번역비평의 주체로는 대학교수(전 현직포함: 92%)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4%), 신화 전문가(4%), 그리고 번역가(4%)로 구성되어 있었다.”(전현주 2007: 26) 이러한 결과는 “번역비평’은 ST와 TT를 전제로 학제간의 지식, 이문화(異文化)의 수용능력은 물론 문학적 기술능력이 요구되는 고도의 작업을 요하기 때문”(김효중 1998: 256)과 무관하지 않다. 즉, 번역비평가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모국어는 물론 비평대상 텍스트의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두 문화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 해독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독자는 전문비평가와 마찬가지로 번역비평의 주체로서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검증한다. 그러나 전문독자는 전문비평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부합되는 측면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 지향하는 ‘반드시 ST와 TT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TT 중심의 ‘서평’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문비평가와 구분한다. 한편 일반독자는 보통 작품을 읽은 후 ‘회상적’(retrospective)인 비평<sup>3)</sup>을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3) ‘회상적 비평’이란 ‘대상작품의 특정한 내용에 독자가 공감 혹은 반감을 가지고 있음



작품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거친 후 분석적이며 객관적인 반응을 하는 전문비평가와 달리 일반독자는 ‘즉흥적’이며 ‘감상적’이고 다분히 ‘실시간적인’(real-time)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반독자 역시 ST와 TT를 대조하기보다는 주로 TT 자체를 분석대상 도서로 삼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번역비평 보다는 오히려 ‘서평’(book review)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실 일반독자들의 비평은 전문 비평가들의 비평행위에 비하면 수적인 우세와 실시간 반응 등으로 무장하여 특히 온라인의 제도적인 장치(주요 온라인 서점의 독자서평 등의 고정 콘텐츠)를 통하여 엄청난 호소력과 대중성을 지닌 여론을 주도하는 막강한 집단으로 성장한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서평과 일반독자의 비평에 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에서 서평은 분석대상 비평 텍스트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심도있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 2.1.3 번역비평의 객체

‘번역비평의 객체’란 ‘번역비평의 대상 텍스트와 이를 다루는 방식으로 번역비평 텍스트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말한다. 비평가의 비평전략에 따라 번역비평 대상 텍스트를 분석하는 범주는 물론 비평방식과 서술방식이 달라진다. 이는 분석대상 텍스트의 범주에 따라 비평가는 비평방식과 서술방식 등 비평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가령 ST를 기준으로 비평대상 텍스트를 단수, 복수, 혹은 시대별, 언어별, 작가별 분류 방식에 따른 대상 텍스트 전체, 혹은 ST를 배제하고 TT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을 경우 비평방식과 서술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분석대상 텍스트를 기준으로 비평가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번역전략과 차이점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격적인 번역비평을 위한 첫 단계로서 번역비평 텍스트의 골격을 구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2.1.3.1 번역비평의 비평 범주

번역비평가는 비평에 앞서 분석대상 텍스트를 먼저 정해야 한다. 번역비평은 무엇보다도 분석대상 텍스트를 선정할 때 비평동기가 ST 혹은 TT에서 비롯

---

을 민감하게 표현하여 반응하는 방식’이다.

되는 것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ST와 TT를 동시에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비평가의 분석대상 텍스트의 범주<sup>4)</sup>를 구분할 때에도 반드시 ST와 TT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번역비평의 범주를 ST의 수를 기준으로 ‘개별적 비평’(단일 작품), ‘집단적 비평’(2개 이상의 작품), 그리고 ‘총체적 비평’(시대별, 언어별, 작가별 등의 평가기준으로 분류한 범주에 속하는 번역 텍스트 전체)(김상호 1994, 2002), 그리고 ST를 배제한 ‘TT 중심의 비평’ 방식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전현주 2007). 비평 범주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별적 비평’은 비평대상 텍스트의 ST : TT의 비율이 1 : 1 혹은 1 : 다수로 1 : 1의 경우는 한 종의 TT만 존재하므로 TT의 출판이력과 관련된 외적인 용인성에 대한 점검과정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분석 대상 TT의 번역현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1 : 다수의 경우는 다수의 TT 판본이 있으므로 TT의 외적인 용인성(텍스트적, 인적, 시간적, 언어적 요소 등 고려)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비평 텍스트에서 다룰 분석 대상 텍스트의 선정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텍스트의 선정과정을 행한 후 비로소 분석 대상 텍스트에 대한 내적인 용인성을 점검한다. ‘개별적 비평’은 TT의 내·외적인 용인성을 다각적으로 점검(논제중심 및 텍스트 중심)하므로 독자는 번역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작품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집단적인 비평’은 분석대상 텍스트의 ST : TT의 비율이 다수 : 다수로 증가한다. ‘논제 중심’ 및 ‘텍스트 중심’의 비평방식을 주로 적용하여 TT의 내·외적인 용인성을 다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논제중심’의 비평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 논제의 번역 현상이 다수의 작품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논제와 관련된 현상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는 안목도 갖게 된다.

‘총체적 비평’은 분석대상 텍스트의 ST : TT의 비율이 총합 : 총합으로 급증한다. 해당 분류방식이 포괄하는 범위의 전체 ST와 TT를 시기별, 언어별, 작

4) 김상호(1995: 247)는 “비평대상 도서의 범위에 따라 비평의 종류를 단일 작품에 대한 개별적 비평, 특정 논제 및 저자의 주요 작품에 대한 집단적 비평 그리고 특정 분야의 모든 문헌을 망라하여 평가하는 총체적 비평”으로 분류하였다.

가별, 장르별, 번역가별, 출판지별 등으로 분류하므로 번역사를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 텍스트에 관한 서지정보 분류방식을 통하여 비평가의 비평전략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분류방식과 번역서지에 관한 통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내용’과 ‘의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 작품의 외적인 용인성을 고찰할 때 용이한 반면 내적인 용인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TT 중심의 비평’은 분석대상 텍스트의 ST : TT의 비율이 0 : 1 혹은 0 : 다수로 ST를 배제한 TT 중심의 번역비평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번역비평은 본질적으로 ST와 TT의 비교 분석을 전제하며, 분석대상 비평 텍스트 역시 주로 전문 비평가의 비평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TT 중심의 비평’ 방식은 번역서평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학술적인 번역비평에 비하여 빈도수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주로 당대의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간적인 서평이 이루어지므로 현재 독자들의 독서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으로 날로 거대화되고 있다.

### 2.1.3.2 번역비평의 비평 방식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번역비평가들의 비평방식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평가들은 범주별로 번역현상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전개방식을 취하며, 크게 ‘논제 중심’, ‘텍스트 중심’, ‘문헌 중심’, 그리고 ‘인상 중심’으로 비평 방식(김상호 1994, 2002)을 달리 적용한다. 따라서 비평 방식은 1차적으로 비평가의 비평전략과 분석대상 텍스트의 범주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제(論題)중심의 비평방식은 분석대상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한 가지 이상의 주제에 따라 그와 관련된 각종 번역현상(오역, 오류, 고유명사 표기, 첨가 누락, 번역가의 배경지식 등)을 중점적으로 비평하는 방식이다. 전문 비평가들이 ‘개별적 비평’ 및 ‘집단적 비평’의 범주에서 주로 적용한다. 비평가에 따라 번역현상을 진단하는 관점이 다르므로 논제의 양상도 다양하여 독자는 여러 가지 오역현상을 접함과 동시에 실제로 유사한 오역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긴다.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번역비평에 비하여 단편적인 번역현상을 진단하므로 작품 전체의 번역현상을 개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텍스트중심’의 비평방식은 비평대상 텍스트의 내·외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번역과 관련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개별적 비평’이나 ‘집단적 비평’의 범주에서 주로 적용한다. 평가주체와 평가방법을 포함한 TT의 내·외적인 용인성을 골고루 점검할 수 있다. ST에 대한 TT의 분석방식이 작품의 내적인 요소 중 어떤 현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 논제중심의 비평방식이 된다. 반면에 텍스트의 내적 혹은 외적인 면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 쪽을 배제하면 반쪽짜리 번역비평에 그칠 수 있다.

‘문헌(文獻)중심’의 비평방식은 비평대상 텍스트의 서지정보에 기초하여 번역현상을 종합적이며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총체적 비평’의 근간을 이루는 비평방식으로 번역서지의 범주 및 통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내용과 의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인상(印象)중심’의 비평방식은 번역 텍스트를 읽는 도중이나 읽은 후 독자 자신의 경험이나 인상 혹은 느낌에 기초하여 작품에 관한 평을 하는 방식이다. 전문독자에 비하여 일반독자들은 주로 ST와 TT를 비교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TT만을 대상으로 비평한다. 이들은 인터넷 상의 ‘독자 서평’란을 통해 실시간 반응을 하므로 독자들이 선호하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 그러나 인터넷의 속성상 독자는 익명이나 ID로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는 반면 작가나 번역가는 실명으로 비평이 이루어지므로, 명확한 비평의 근거도 없이 군중 심리를 자극하거나 실명이 거론된 비평대상 번역가는 일종의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인상중심’의 비평은 사이버상에 난무하는 익명성에 근거한 일종의 댓글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일반독자들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 2.1.3.3 번역비평의 서술 방식

분석 대상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번역비평의 서술방식은 ‘기술적 방식’, ‘비평적 방식’, ‘감상적 방식’, 그리고 ‘시사적인 방식’ 등 네 가지의 양상(김상호 1994, 2002)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記述的)서술방식’은 텍스트의 내용과 형태 등에 관하여 비평가의

주관을 개입시키거나 비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방식이다. 평가 대상도서를 다른 도서와 구별할 때 필요한 서지사항 등을 기술할 때 주로 적용한다. ‘개별적 비평’과 ‘집단적 비평’에서 분석대상 텍스트의 출간이력과 선정과정 및 결과 등을 기술할 때 주로 적용한다. 그리고 ‘문헌 중심’의 비평방식으로 접근하는 ‘총체적 비평’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된다(시대별, 장르별, 작가별, 역자별, 혹은 언어별 번역의 양상 진단). 하지만 서지정보의 오류는 통계와 분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비평적 서술방식’은 비평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텍스트의 내용, 형태 등에 관하여 비평하는 방식이다. 전문비평가가 행하는 비평방식 중 ‘인상 중심’의 비평방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번역비평 텍스트에서 적용하는 서술방식이다. 학술적인 번역비평 텍스트의 경우 ‘기술적 서술방식’과 ‘비평적 서술방식’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비평문 자체의 현학성과 전문성이 지나치면 독자를 배제한 비평가들의 이기적인 지적향유에 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분석대상 텍스트에 대한 꼼꼼한 읽기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제기의 이유와 해법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감상적 서술방식’은 일반독자들이 작품을 읽는 도중 혹은 읽은 후에 느끼는 감상을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즉흥적 혹은 일회성으로 소회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험 혹은 작품을 읽게 된 동기,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한 느낌 등을 정형화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적인 서술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서적의 판매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번역의 품질과 내용의 진위 등에 관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져 독자는 물론 출판 관계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향후 보다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독자들의 활약으로 새로운 소비자 문화를 형성해 갈 것으로 보인다.

‘시사적 서술방식’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신간서적 위주로 그 내용이나 작가 혹은 번역가, 출간당시의 시대상, 번역계기 혹은 내용요약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술방식이다. 작품 출간시점을 전후하여 비평이 이루어지므로 시차(timelag)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sup>5)</sup> 독자들에게 신간서적에 대한 새로운 정보

를 제공하고 당시 독자들의 독서경향과 출판경향 등을 반영하므로 그 성격이 ‘서평’에 가깝다.

#### 2.1.4 번역비평의 매체

번역비평의 매체는 비평가의 전문성,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과 성격, 비평 텍스트의 수용자에 따라 발표하는 매체가 달라진다.(김상호 1994, 2002) 그 종류는 학술지(『번역학 연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전문 비평지(『안과밖』의 <번역을 짚어본다> 「교수신문」의 <고전번역비평> 코너), 전문 신문(『도서신문』, 『독서신문』, 『출판저널』 등), 단행본(『문화의 오역』, 『잔혹한 책읽기』, 『번역이란 무엇인가?』,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연구 上·下』 등), 일간신문, 인터넷, 잡지 등이 있다. 학술지와 전문 비평지 및 전문 신문 등은 상업성이 낮고 비평대상 도서의 수와 비평시점과 출간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기 때문에 독서문화를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일간신문이나 잡지 및 인터넷 등은 비평대상 도서의 수가 상당하며 번역비평보다는 서평의 성격을 지닌 고정칼럼을 통하여 화제도서, 신간도서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서지사향과 간략한 내용만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서평은 학술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상업성이 농후한 ‘광고성 서평’의 비중이 높고 TT 중심의 비평이 주로 이루어지며 “분석대상 도서가 번역서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는 경우”(Munday 2001: 144-156)도 있어 번역과 번역가의 위상 등 번역문화 전반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2.1.5 번역비평의 수용자

번역비평 텍스트의 수용자는 해당 역자는 물론 학자나 학생, 전문독자와 일반독자 등 여러 종류의 독자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비평의 객체 및 매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학술지나 비평 전문지 혹은 전문 신문 등의 대상독자는 단행본이나 신문, 잡지 혹은 기타 매체에 비하여 수용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가령, 학술지 『번역학 연구』의 2005년 봄 호에 게재된 ‘한국번역학회 회원 주소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수용자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

5) “일간지에 발표되는 서평의 시차는 1주일 정도에 불과하다.”(김상호 2002 : 228)

었다.

총 680명(단체회원 제외)의 회원 중 교·강사 및 번역회원이 전체의 594명(87%)과 77명(11%)을 각각 차지하며, 전공외국어는 영어 471명(69%), 일본어 62명(9%), 중국어 25명(3.7%), 불어 27명(4%), 독일어 15명(2%)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 및 전공 외국어 분포는 해당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는 논문의 저술언어 및 주제 언어의 구성비와도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번역학 연구』제 1권 1호부터 제 7권 2호까지 총 14권에 수록된 총 125편의 저술언어는 영어 14편(11.2%), 일본어 1편(0.8%), 그리고 한국어 110편(88%)이며, 주제관련 언어는 일본어 9편(7.2%), 중국어 2편(1.6%), 아랍어 1편(0.8%), 만주어 1편(0.8%), 나머지는 영어 112편(89.6%)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회회원 중 영어 관련 전공자가 69%를 차지하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저술언어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11.2%에 그친다는 사실은 번역비평 학술지의 수용자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의 대표적인 번역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이 내수용에 그칠 수 있는 한계점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저술언어는 영어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외국어 사용을 지향하는 한편, 주제 관련 언어는 영어의 편향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언어와 관련되는 번역의 제 현상을 논의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고려한 언어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2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은 앞 장에서 제시한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에 관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번역비평의 범주(개별적 비평, 집단적 비평, 그리고 총체적 비평, TT중심의 비평)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먼데이(2001: 157-160), 투리(1995: 72-73), 그리고 박여성(2002: 53) 등이 제시한 번역비평 텍스트의 분석모델을 종합하면 TT를 상호 비교할 때 번역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도출할 수 있다. ST : TT의 용인성을 점검하는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텍스트적 요소’(ST와 TT), ‘인적요소’(ST의 원저자와 TT의 번역가), ‘시간적 요소’(여러 TT의 공시적 혹은 통시적 출간), 그리고 ‘언어적 요소’(ST와 TT에 관여하는 최소 2개 언어). 이들 4가지 요소의 결합 양상에 따라 ST와 TT의 비평 방식은 물론 번역 텍스트의 전개방식과 내용 등 전반적인 구성이 달라진다. 다

음은 여러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ST와 TT의 비평방식을 나타낸 분류표이다. 이 분류표는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다음의 2.2.1 번역비평 텍스트의 비평방식에서 이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표 2-2> ST : TT의 비평방식 분류표

비평 범주	비평 요소 ST : TT의 비평 유형	텍스트적 요소					인적 요소		시간적 요소		언어적 요소		
		1:1	1:다수	다수:1	다수:다수	총합:총합	단수	복수	공시적	통시적	1개	2개	3개 이상
개별적비평	단일 TT	√					√		√			√	
	1인 역자의 공시적 TT		√				√		√			√	
	1인 역자의 통시적 TT		√				√			√		√	
	다수 역자의 공시적 TT		√					√	√		√		
	다수 역자의 통시적 TT		√					√		√	√		
	1인 역자의 증역본			√			√		√				√
	다수 역자의 공시적 증역본			√				√	√				√
	다수 역자의 통시적 증역본			√				√		√			√
	집단적비평	1인 역자의 공시적 ST와 TT				√		√		√			√
1인 역자의 통시적 ST와 TT					√		√			√		√	
다수 역자의 공시적 ST와 TT					√			√	√			√	
다수 역자의 통시적 ST와 TT					√			√		√		√	
총체적비평	공시적 번역사					√		√	√			√	√
	통시적 번역사					√		√		√		√	√

(읽어두기 :

1. 텍스트적 요소는 ‘ST : TT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ST의 수를 기준으로 비평의 범주가 구분된다. 그리고 TT는 한국어에 한함. 가령, ST1(영어) 저본에 대한 ST2(일어)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ST : TT = 2 : 1로 분류한다.  
또한, ST : TT = 총합 : 총합은 ST와 TT의 서지정보를 일정 시기별, 장르별, 작가



- 별 등으로 나누어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의미에서 ‘총합’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2. 언어적 요소는 ‘SL과 TL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3. 번역본의 시차와 관련하여 편이상 공시성은 TT간의 출간일이 0-10년까지, 통시성은 10년 이상으로 삼았다. 이는 김병철의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연구 上·下』(1998)에서 한국 현대 번역사 분류방식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졌음에 근거하였음을 밝혀둔다.)

### 2.2.1 번역비평 텍스트의 비평방식

위의 <표 2-2>에서 보드시피 ST : TT의 비평방식에 따라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10가지 양상의 ‘개별적 비평’, 4가지 양상의 ‘집단적 비평’, 그리고 2가지 양상의 ‘총체적 비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ST를 배제한 TT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평방식을 제외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단 표절본 유무를 가리기 위한 과정에서 TT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평방식은 ST를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점을 전제하므로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비평가가 번역 텍스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전에 먼저 ST : TT의 비평방식을 선정하는 과정은 번역비평 대상 텍스트의 규모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번역비평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2.2.1.1 개별적 비평

‘개별적 비평’이란 앞서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ST : TT의 비평방식이 1 : 1 혹은 1 : 다수로 한 가지 원전에 대한 단수 혹은 복수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비평 방식이다. 번역비평 시 ST : TT의 비평방식은 분석대상 텍스트를 한 종의 ST로 전제했을 때, 단일 번역가 혹은 여러 명의 번역가들이 번역한 번역본을 비슷한 시기 혹은 시간차를 두고 비교하는 방식이 주도적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번역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비평방식을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1인의 번역가 혹은 2인 이상의 번역가와 관련되는 ST : TT의 비평유형을 각각 4가지와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인 역자’와 관련되는 ST : TT의 비평유형을 각각 살펴보면, ‘단일 TT의 경우 대략 해당 원전에 대한 번역본이 한 종(種) 밖에 없거나 복수의 TT가 있지만 한 종의 TT만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의 비평방식이다. 분석대상 텍

스트의 규모면에서 타 비평방식에 비하여 비평과정이 비교적 단순할 수 있다. 비평가는 1인 역자의 한 종의 TT를 대상으로 비평하므로 보다 철저하게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타 번역가나 다른 번역 텍스트와의 비교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평의 장점을 놓치는 단점이 있다. ‘공시적 TT’의 경우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의 ST에 대한 동일 번역가의 2개 이상의 번역본이 출간되려면 최소한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두 번역본 사이에 발생하는 최소한의 시차는 이미 공시성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시적 TT’의 경우는 해당 ST에 대한 둘 이상의 판본이 다른 번역본에 대한 비평을 하는 방식이다. 번역본의 단계별 교정과정을 살펴보면 초기단계에서 최종단계로 변화할 때 추이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동일 번역가의 여러 판본간의 차이를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다. 동일 번역가의 동일 원전에 대한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는 비평방식은 번역가의 번역전략과 시기별 언어 습관 그리고 변화상을 비교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단계별 교정과정을 살펴보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수록 원본보다는 TL의 환경을 고려하며, TL 문화에서의 용인성이 교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oury 1995: 73) 마지막으로 ‘중역본’의 경우 원전 번역이 아닌 다른 언어로 된 번역본을 다시 번역한 중역본을 비평할 때 적용하는 ST : TT의 비평방식이다. 가령, 번역가 김기태는 『꿈의 해석』의 독일어 저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저본의 영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번역하였으므로 원전 번역이 아닌 중역을 하였다. 이 경우 동일 작품에 대한 ST의 수가 둘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중역본을 비평할 때 이와 같은 ST : TT의 비평방식을 적용하면 TT의 원전 번역 여부 즉 중역 여부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2인 이상 역자’와 관련하여 ‘공시적 TT’ 중 ‘TT 중심의 비평’의 경우 동시대에 출간된 해당 원전에 대한 여러 역자의 번역본이 다수 존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번역본의 비평방식이다. ST와 TT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번역본끼리 비교하여 표절본 여부, 독립적인 번역본의 유무는 물론 참조본의 경로나 표절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비평가들이 분석대상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을 검증할 때 활용하면 용이하다. 동시대에 발간된 2인 이상 역자의 표절본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 혹은 표절의 정도가 심할 때에는 원전을 참고하지 않고 먼저 번역본끼리 대조하여도 진위를 밝힐 수 있다. 다음으로

‘ST : TT 비평’의 경우는 ‘해당 원전에 대한 2인 이상 역자가 동시대에 출간한 번역본을 대상으로 ST와 TT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비교 유형으로 변수(variable)가 적어 설득력이 있다”(Toury 1995: 72)고 하였다. 같은 텍스트에 대한 번역의 이력, 번역가마다 다른 번역이 나오는 이유, 개별 번역본의 번역의 품질 및 번역전략 및 타 번역본과의 차이, 동시대의 번역 특징 등 다양한 번역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보통 표절본이나 중역본 등을 제외한 텍스트 외적인 용인성을 1차적으로 검증한 분석대상 도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번역가들의 번역전략이나 번역가의 역량 혹은 분석대상 텍스트 간의 우열 혹은 특성을 가릴 수 있다. 다음으로 ‘통시적 TT’의 경우 2인 이상 역자들이 출간한 번역본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상호 표절관계를 규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비평방식이다.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TT만을 대상으로 상호 비교하여도 표절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가장 흔히 적용되는 ST : TT의 비평방식으로 ‘다수 역자의 통시적 TT’에 대한 비평방식이다. 다수의 역자와 관련되므로 역자간의 번역전략이나 역량 혹은 특징이나 우위를 파악할 수 있다. 시차가 발생한 번역본의 경우 목표 언어 사회의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전략의 변화상(한자사용, 세로쓰기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공시적 중역본’의 경우 원전에 대한 번역본을 토대로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중역 현상을 점검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언어적 요소가 개입한다. 언어적 요소를 고려한 ST : TT의 비평방식은 중역본 여부를 밝힐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비평방식이다. 그리고 ‘통시적 중역본’의 경우 위의 다수 역자의 공시적 중역본에 대한 비평 방식과 시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같은 특성을 갖는다.

투리(1995: 73)는 한 작품의 시기별 번역본을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비교시 언어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둘째, 두 번역본간에 시차가 클수록 더욱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세히 분석대상 비평 텍스트 선정과정을 제시한 이유는 TT간의 시차가 클 때 비평가는 반드시 ‘통시성’을 ‘유표성’으로 인식하여 비평 텍스트에 그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2.2.1.2 집단적 비평

‘집단적 비평’이란 앞서 살펴본 ‘개별적 비평’과 달리 복수의 원전을 대상으로 비평하므로 번역비평 대상 텍스트의 범주는 ST : TT의 비율이 각각 2 종 이상인 다수 : 다수로 늘어난다. 여러 개의 ST와 TT를 대상으로 관련되는 번역 현상을 규명하므로 ‘개별적 비평’에 비하여 보다 보편성을 지닌다. ST : TT의 비평 유형을 1인 역자와 2인 이상 역자로 나누고 각각 공시적 ST와 TT 그리고 통시적 ST와 TT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인 역자의 공시적 ST와 TT의 비평유형’은 분석대상 번역가 1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2개 이상의 ST와 TT를 비교 분석하는 비평방식을 적용하면 해당 번역가의 번역전략과 번역역량 및 전문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인 번역가의 복수의 번역 텍스트를 분석하면 번역가의 번역전략이나 배경지식 혹은 번역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성’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현실적으로 1인 역자의 복수의 ST와 TT를 짝짓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비평가는 ST와 TT의 비교대상을 선정할 때 ‘공시성’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정한 후 번역비평에 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1인 역자의 통시적 ST와 TT의 비평유형’은 여러 쌍의 분석대상 ST와 TT의 시차를 고려하므로 해당 역자의 번역이력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영역, 번역전략 및 역량, 그리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번역오류의 유형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인 역자의 공시적 ST와 TT의 비평유형’은 ‘개별적 비평’에 비하여 분석대상 도서의 수가 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타의 비평방식에 비하여 사례로 삼을 만한 번역비평 텍스트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양적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총체적인 비평’에 속할 수도 있어 사례를 찾기가 더욱 쉽지 않다. 하지만 ‘개별적 비평’에 비하여 여러 역자의 다수의 번역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대의 번역경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2인 역자의 통시적 ST와 TT의 비평유형’은 위의 다수 역자의 공시적 ST와 TT에 대한 비평 방식과 시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같은 특성을 갖는다.

### 2.2.1.3 총체적 비평

‘총체적 비평’이란 ‘ST와 TT의 서지정보를 일정 시기별, 언어별, 작가별, 번역가별 등으로 나누어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문헌 중심의 비평방식’이다. 문헌

중심의 ‘총체적 비평’ 텍스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병철의 『한국현대번역문학사 연구 上.下』(1998)와 봉준수 외의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2004)가 있다. ‘총체적 비평’의 기반은 정확한 서지목록의 작성에서 비롯된다. 김병철은 자료입수 및 열람 등을 제외하고 비평가 단독으로 방대한 량의 자료를 분류 및 분석하였으며, 봉준수 외는 각 언어권의 전공자로 구성된 연구진이 대거 참여하여 각 언어권별로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는 언어권별 수용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번역학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번역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안 및 향후 번역 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서지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총체적 비평’의 비평방식을 번역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공시적 번역사’와 ‘통시적 번역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시차를 반영한 분석방식은 앞서 제시한 <표2-5> ‘ST : TT의 비평방식 분류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적, 언어적, 텍스트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사적 비평 텍스트는 분석 자료가 방대하므로 단행본의 형식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행본에서 다룬 내용의 특성상 시간적 요소를 횡적인 면과 종적인 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므로 동일 단행본에서 번역사의 공시적인 면과 통시적인 면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공시적인 번역사는 주로 ‘번역사를 다루는 번역비평서에서 일정 시기에 이루어진 번역의 현황과 특성을 진단할 때 적용하는 번역비평 방식’이다. 분석대상 자료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개별적 비평’과 ‘집단적 비평’과 달리 개별 텍스트보다는 서지정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문헌 중심의 번역비평 방식이 이루어진다. 당대의 번역문화의 특성과 경향을 진단할 수 있으며, 전 시대와의 차이점 그리고 향후 번역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료의 분석방법이 서지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텍스트의 외적인면에 치중하므로 번역 텍스트의 내적인 면을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공시적인 번역사’를 시대별로 조합하면 ‘통시적인 번역사’에 대한 비평 텍스트가 된다.

통시적인 번역사(翻譯史)는 주로 ‘번역사를 다루는 번역비평서에서 시기별 번역의 현황과 특성을 진단할 때 적용하는 번역비평 방식’이다. ‘공시적인 번역

사'를 다루는 비평은 한 시대의 번역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지만 '통시적인 번역사'는 문자 그대로 여러 시대를 망라하여 총체적인 번역비평을 행한다. 통시적 번역비평은 공시적 번역비평에 비하여 분석대상 범위가 폭넓고 광범위한 번역현상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므로 번역과 관련된 제 현상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개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양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번역현상을 분석하므로 질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주류 현상을 중심으로 번역현상을 진단하므로 번역문학의 개별성과 작품의 진가가 왜곡 될 수 있다"(전현주 2004: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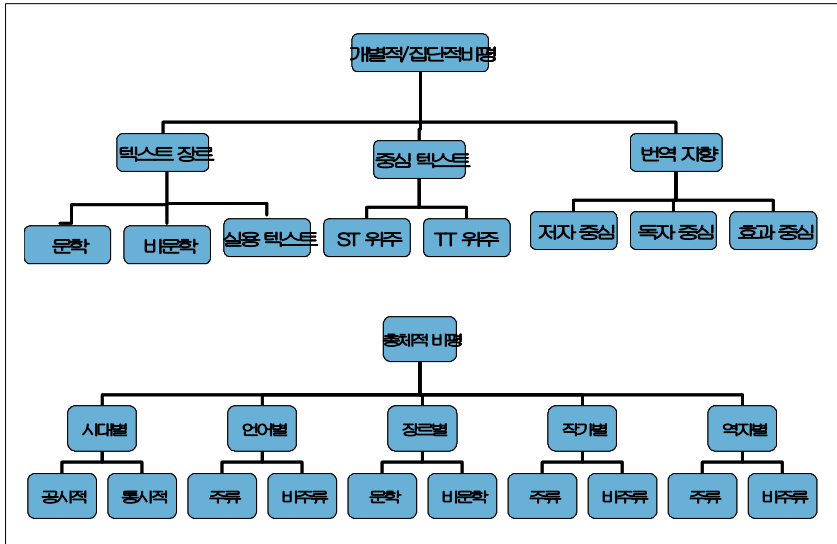
지금까지 번역비평 텍스트의 범주에 관하여 제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ST : TT의 비평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번역비평의 범주를 규정짓는 ST : TT의 비평방식은 인적 요소, 텍스트적 요소, 그리고 언어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가 상호 관련성을 갖고 달리 구성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평가들이 실제로 번역비평을 할 때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틀의 역할을 한다. 또한 비평가들은 번역 텍스트의 내적인 용인성을 검증할 때 ST : TT에 대한 비교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번역의 평가기준은 번역가의 번역전략과 부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ST : TT에 대한 비평방식은 분석대상 번역 텍스트에 대한 평가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비평가는 번역비평의 선행단계로 분석대상 텍스트를 선정할 때 텍스트적 요소, 인적 요소, 시간적 요소 그리고 언어적 요소 등 유효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ST : TT의 비평방식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번역비평의 선행단계를 거친 후 비로소 본격적인 번역비평을 할 수 있다. 다음은 번역비평 시 적용해야 할 ST와 TT의 평가기준 및 TT의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을 번역비평의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2.2 ST : TT의 평가기준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김효중 1998: 252) "번역비평은 번역 비교를 통한 결과로서 번역비평가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이론적 원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번역의 규범에 의거해야 한다."(Reiss 1997) 다시 말해 "번역비평은 번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면과 부정

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질적 평가를 내리는 데 그 목표가 있다.”(김효중 1998: 248-5) 다음은 필자가 번역학의 일반적인 개념 등을 포괄하여 기존의 비평 텍스트 분석에 기반하여 번역비평 텍스트의 실질적인 내용을 주도하는 개별적 비평, 집단적 비평, 그리고 총체적 비평의 ST : TT의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범주별 평가기준으로 개별적 비평과 집단적 비평은 텍스트 장르, 중심 텍스트, 그리고 번역 지향을, 총체적 비평은 시대별, 언어별, 장르별, 작가별, 역자별 등의 요소를 포괄하였다.

<표 2-3> 개별적/집단적/총체적 비평의 평가기준



2.2.3 ST : TT의 평가항목

앞서 제시한 분석대상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비평가들은 ‘개별적 비평’과 ‘집단적 비평’ 텍스트에서 다양한 텍스트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골고루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체적 비평’ 텍스트에서는 ST와 TT의 서지정보를 활용한 시대별, 언어별, 장르별, 작가별 그리고 번역가별 통계를 통하여 번역사 개관, 작가나 작품의 위상점검, 번역 혹은 오역에 관

한 논쟁점, 국내의 번역 출판경향 진단, 독자반응 및 의의 검토 등 번역 텍스트를 둘러싼 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의 분류 범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형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Raabe 1980: 74)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번역 텍스트의 평가항목들은 크게 ‘텍스트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전현주 2006: 183)으로 나누었다. 이는 본고에서 다양한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비평가들이 텍스트의 내·외적인 면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점검하고 있음을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투리가 텍스트 내적 요소(intra-textual source)와 텍스트 외적 요소(extra-textual)에 기반하여 번역과정에 존재하는 규범을 정리하고 재구성(Toury 1995: 65)한 방식과도 부합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텍스트의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번역 텍스트의 평가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텍스트 내·외적 요소는 위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하지만, 번역비평 텍스트의 분석 시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명기하였다.

<표 2-4> 개별적/집단적/총체적 비평의 평가항목

개별적/집단적 비평								
평가항목 번역지향	텍스트 외적 요소				텍스트 내적 요소			
	TT의 출판이력	번역 전략	역자의 역량	독자 (의뢰인) 반응	어휘적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저자중심	√	√	√	√	√√	√√	√	√
독자중심	√	√	√	√	√	√	√	√√√
효과중심		√	√	√√√	√	√	√	√√√
총체적 비평								
텍스트 외적 요소								
번역사개관	언어, 장르, 작가, 역자별 TT 출간이력 및 양상 점검		독자반응	국내 번역, 오역 논쟁	국내외 출판 경향 진단	기타		
√√	√√√		√	√	√√	√		

(단,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체크표시(√)의 개수를 달리 표현한 것은 번역비평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비평가의 분석 선호도를 가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2.3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 및 내용 평가항목표

지금까지 살펴본 번역비평 텍스트의 분석을 기반으로 마련한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 및 형식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번역비평 텍스트의 용인성을 검증(전현주 2006)하는 번역비평 텍스트의 비평전략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다음의 평가항목표에 제시된 요소는 각 번역비평 텍스트에서 다른 요소를 비교하여 번역비평의 실제와 특징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 등을 반영하였다. 이는 향후 번역비평 시 반영해야 할 요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보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비평 텍스트를 분석할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자들이 실제 번역비평을 한 후 자가 점검 항목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 및 내용 이외에 검증방식을 포괄한 이유는 일부 비평가의 경우 ST : TT의 검증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인데 반하여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비평은 혹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비평방식을 점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한 번역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제시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번역의 질을 논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표 2-5>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검증하는 번역비평 텍스트의 비평전략 평가항목표

번역비평 텍스트 평가항목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	비평의 종류	자가비평 혹은 타자비평		
	비평의 주체	전문 비평가 혹은 독자	1인 혹은 2인 이상	
	비평의 객체	비평의 범주	개별적 비평	
			집단적 비평	
			총체적 비평	
			TT 중심의 비평	
	비평의 방식	비평방식	논제중심/텍스트 중심/문헌중심/인상중심	
		서술방식	기술적/비평적/감상적/시사적	
		텍스트 장르	문학/비문학/실용 텍스트	
		평가기준	정확성/가독성	시대별/언어별/작가별
비평의 매체	전문서적 혹은 일반서적			
비평의 수용자	전문독자 혹은 일반독자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	ST : TT 비평요소	텍스트적 요소/인적요소/시간적 요소/언어적 요소		
	평가요소	ST 중심	저자중심	
		TT 중심	독자중심/효과중심	
		시대별		
		언어별		
		장르별		
		작가별		
		역자별		
	장르	문학 텍스트/비문학 텍스트/실용 텍스트		
	평가항목	텍스트 외적요소	T 이력검증	
번역전략				
역자의 역량 및 배경지식				
독자반응				
텍스트 내적요소		기타		
		어휘적인 면		
		의미적인 면		
		통사적인 면		
		화용적인 면		
		기타		
번역텍스트의 검증방식	ST : TT의 검증범위	무작위/일정분량/텍스트 전체		
	오류전개방식	ST : TT 제시/TT : ST 제시		
		오류 및 문제점 분석		
		대안번역 제시		

### 2.3.1 번역비평 텍스트의 분석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 및 내용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표 2-5>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검증하는 번역비평 텍스트의 비평 전략 평가항목표를 적용하여 비평가들이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검증할 때 적

용하는 비평전략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6>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 및 검증 방식표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 및 검증방식		분석대상 도서						
		안과박	교수신문	문화의 오역,	잔혹한 책임기	번역이란 무엇인가?		
형식	종 류	자기비평				✓		
		타자비평	✓	✓	✓	✓		
	주 체	전문 비평가 혹은 독자	전문 비평가	전문 비평가	전문 비평가	전문 비평가		
	객 체	비평의 범주	개별적 비평	개별적 비평	개별적/ 집단적 비평	개별적 비평	개별적 비평	
		비평방식	텍스트중심	텍스트중심	논제중심	논제중심	텍스트중심	
		서술방식	기술적, 비평적	기술적, 비평적	기술적, 비평적	기술적, 비평적	기술적, 비평적	
	배 체		비평전문지	전문 신문, 단행본	단행본	단행본	단행본	
수 용 자 : (①해당역자 ②학자, 학생 ③전문 독자 ④일반 독자)		①②③④	①②③④	①②③④	①②③④	①②③		
내용	ST : TT 비평요소	텍스트적 요소	✓	✓	✓	✓	✓	
		인적 요소	✓	✓	✓	✓	✓	
		시간적 요소	✓	✓	✓		✓	
		언어적 요소		✓				
	평가요소	ST 중심	저지중심	✓	✓	✓	✓	✓
		TT 중심	독자중심	✓	✓			✓
			효과중심					
			시대별					
		언어별						
		장르별						
	작가별							
	역자별							
	장르	문학 텍스트	✓		✓		✓	
		비문학 텍스트		✓	✓	✓		
		실용텍스트			✓			
	평가항목	텍스트 외적요소	TT이력검증	✓	✓	✓		
			번역전략	✓	✓		✓	
			역자의 역량 및 배경지식	✓	✓	✓	✓	✓
			독자반응	✓	✓			
		텍스트 내적요소	어휘적인 면	✓	✓	✓	✓	✓
의미적인 면			✓	✓	✓	✓	✓	
통사적인 면			✓	✓	✓	✓	✓	
화용적인 면			✓	✓	✓	✓	✓	
검증 방식	ST : TT 검증방식	무작위 혹은 일정량 혹은 텍스트 전체	✓	✓	✓ 혹은 복수의 텍스트	✓	해당 텍스트 전체	
	오류 전개방식	ST : TT : 오류분석	✓	✓	✓	✓		
		대안번역 제시 (오류빈도)	✓	✓	✓	✓		
		번역이론적용	✓				✓	
		총평	✓	✓	✓	✓	✓	

위의 표에서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을 살펴보면 자기비평 텍스트로 『번역이란 무엇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번역비평 텍스트는 모두 타자비평 텍스트에 속한다. 그리고 비평의 주체는 모두 전문 비평가군으로 이는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 텍스트를 선정할 때 실명비평 및 ST와 TT를 반드시 비교분석하는 텍스트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비평의 범주는 『문화의 오역』은 개별적 비평과 집단적 비평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와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은 총체적 비평이 이루어졌다. 다만 『안과밖』과 『교수신문』의 비평 텍스트는 각각 개별적 비평에 속하나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면 집단적 비평 텍스트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비평 방식은 『문화의 오역』과 『잔혹한 책읽기』는 논제중심으로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 및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은 문헌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텍스트 중심의 비평이 이루어졌다. 서술방식에 있어서는 공히 기술적 서술방식과 비평적 서술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비평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ST : TT의 비평방식에서 적용한 비평요소를 살펴보면 『교수신문』의 경우는 중역과 관련된 비평이 많아 ‘언어적 요소’가 포함되었고 『잔혹한 책읽기』의 경우는 ST에 대한 단일 TT를 비평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텍스트적 요소와 인적요소에 국한하였다. 평가요소는 주로 총체적 비평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ST를 중시하였고 TT의 독자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도 있었다. 총체적인 비평 텍스트는 텍스트의 외적인 요소를 주로 점검하기 때문에 내적인 요소를 점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기 비평 텍스트의 경우는 텍스트 외적인 요소를 점검한 근본적인 이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텍스트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비평 텍스트가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ST : TT의 검증방식을 살펴보면 대개 무작위 혹은 일정 분량 혹은 텍스트 전체를 점검하는데 비해 집단적 비평은 개별적 비평(『안과밖』: 1:1 부터 1: 6-10<sup>6</sup>), 『교수신문』1:1, 2:17, 5:1 등<sup>7)</sup>에 비하여 검증대상 텍스트의 수가 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한편 총체적인 비평의 경우는 시대별, 언어별, 장르별, 작가별, 역자별 등 분석 기준과 관련하여 출판된 번역물 전체

6) 『안과밖』의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의 수(ST : TT)와 비율(전현주 2007: 34)

7) 『교수신문』의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의 수(ST : TT)와 비율(전현주 2007: 37)

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규모는 번역사를 망라할 정도로 크다. 번역오류에 대한 지적 및 그 전개방식은 주로 ST : TT : 오류분석의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ST : TT의 해당 페이지 수나 대안번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교수신문」의 몇몇 비평 텍스트의 경우는 번역 오류에 대한 사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전체적인 번역의 질을 비평하여 비평 텍스트의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분석 대상 비평 텍스트는 번역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 III. 결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 국내 주요 번역비평 전문지와 전문 신문 그리고 단행본 등에 실린 다양한 번역비평 텍스트를 대상으로 비평가들의 비평전략에 대한 비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자는 실제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기존의 이론에 의존하기보다는 번역비평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번역비평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의 패러다임의 구축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비평가의 비평전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번역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번역비평의 체계(형식과 내용)와 평가기준, 여러 가지 텍스트의 내·외적인 용인성 검증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요소, 번역비평의 현실, 비평가의 자질 등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가능한 다양한 분석 대상 텍스트와 인적구성원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객관성을 적용하여 비평가들의 비평전략을 분석코자 하였다. 전문 비평 텍스트와 비평 전문가들의 실명 비평 텍스트는 번역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용인성 점검 요소는 최소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 이를 기초로 제시하는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은 향후 번역의 전략수립 및 번역비평의 활성화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번역비평의 현실과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동일 작품에 대한 복수의 번역비평 텍스트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비평대상 작품에 대한 번역비평가 1인의 평가결과를 비교할 만한 대

상의 부재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번역비평 텍스트의 부재는 현실적으로 번역비평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가령, 분석대상 작품에 대한 여러 편의 번역비평 텍스트가 있으면 비평가의 비평 전략이나 평가기준 등을 상호 비교하여 비평가 자신은 물론 독자들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보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비평 텍스트와 분석 대상 TT의 출간시점과의 큰 시차는 독자들에게 독서문화를 선도하지 못하므로 번역비평과 비평가의 존재 이유를 퇴색케 한다. 따라서 번역비평의 활성화를 위한 공론의 장이 보다 다양하게 조성되고 지나친 고전작품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동시대와 호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번역비평 텍스트에 대한 피드백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아직 번역학의 여러 이론들이 실제 번역 텍스트에 대한 비평이나 품질평가에 적용되는 활용도가 매우 낮고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번역현상에 따라 적용하는 잣대와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번역학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번역학 자체의 위상에 대한 외부 도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평대상 작품에 대한 비평결과에 대하여 번역가는 물론 학자 등 다양한 독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번역비평 텍스트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비평가는 논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문제가 되는 번역 상황은 ST와 TT를 제시하고 문제점의 요지와 대안번역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번역비평가와 비평 텍스트는 독자와의 거리를 좁혀 활성화된 비평 문화를 이끌어 전반적인 번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번역과 관련된 제 현상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자연적으로 좁혀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호. 1994.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서평문화와 출판저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제 7집. 한국비블리아학회. 247-62.
- \_\_\_\_\_. 2002. 「신문서평의 성격과 경향 분석 -2001년 동아, 한국, 매일신문을 대상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3권 제3호. 韓國圖書館情報學會. 215-33.
- 김정우. 2005. 「한국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권 2호. 한국번역학회. 29-57.
- 김지원.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연구』5권 1호. 한국번역학회. 55-75.
- 김효중. 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 박여성. 2002. 「번역비평을 위한 번역 파라디그마의 효용성: 연구시안(4) 권터 그라스의 “양철북”과 한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1.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53-71.
- 이상원. 2006.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 규범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전성기. 2007. 「인문학 번역과 번역문법」. 『번역비평 이대로 좋은가?』. 한국번역비평학회 : 창립기념학술대회 프로시딩. 35.
-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권 2호. 한국번역학회. 179-205.
- \_\_\_\_\_. 2007. 「번역비평에 대한 비평적 분석」.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번역학회. 2005. ‘한국번역학회 회원주소록」, 『번역학연구』. 7권 1호. 한국번역학회. 234-266.
- Delisle, Jean. 1999. “Utilité de la théorie en 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in H. Awais & J. Hardane (eds.). 1998. *Traduction: Approches et théories*. actes du congrès tenu à l'Université Saint-Joseph. Beyrouth. 49-69.
- Holmes, James S. 1972.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Lawrence Venuti (ed).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and New York: Routledge. 172-185.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 1991. *About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Raabe, Horst. 1980. "Der Fehler beim Fremdsprachenwerb und Fremdsprachen-gebrauch," in Cherubim, D.(Hrsg.). Fehlerlinguistik. *Beitrage zum Problem der sprachlichen Abweichung*. Tübingen. 61-93.
- Reiss, Katharina. 1997. *Translation Criticism - The Potentials & Limitations :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teiner, George. 1997. *After Babel :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Oxford: Oxford UP. 31.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부록

<부록 1>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의 제목, 비평가, 출전 목록  
 : <번역을 짚어본다> , 『안과밖』

장르	비평텍스트제목	비평가	출전
희곡	셰익스피어 번역의 성과와 과제 『셰익스피어 전집』번역본 3정권에 부쳐	서경희(광주대)	창간호 155-76
소설	최근에 나온 『월든』번역본 평가	조철원(인하대)	2권 171-88
	공든 번역, 영문학 연구의 쓸모 토마스하디의 『테스』번역본 점검	김명환(성공회대)	3권 291-308
	새로운 『아들과 연인』 번역을 위한 몇 마디 제언	유두선(홍익대)	4권 290-314
시	월트 휘트먼 『풀잎』번역의 문제	강필중(인제대)	5권 259-82
	『황무지』번역의 어려움	봉준수(연세대)	6권 130-51
소설	쥘리 엘리엇의 『싸일러스 마니』번역본 점검	한애경(한국기술교육대)	7권 278-95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	김 번(한림대)	8권 297-318
	메어리 세리의 『프랑켄슈타인』	김순원(경원대)	9권 259-78
	『모비딕』번역의 문제점	김진경(서울신학대)	10권 69-88
	번역의 어려움과 재미 :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두 번역본	이종일(서울대)	11권 223-39
	나이폴 소설의 번역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거인의 도시』와 『홍내』를 중심으로	왕 철(전북대)	12권 299-319
	찰스 디킨즈 소설의 번역점검	이인규(국민대)	13권 254-79
	살롯 브론테의 『제인에어』번역본 점검	장정희(광운대), 조애리(과기원)	14권 153-73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번역점검	황정아(서울대)	15권 242-66
	토니 모리슨 소설 점검 : 『비러버드』와 『재즈』를 중심으로	설준규(한신대)	16권 201-24
	‘이상한 나라’를 넘어서 컨텍스트의 세계로 : 『앨리스』번역 검토	한혜정(부산대)	17권 171-94
	호러스 윌폴의 『오토만도 성』: ‘로맨스’와 ‘소설’의 경계	신현옥(방송대)	18권 206-27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 문화 해독력과 번역의 문제	유정완(경희대)	20권 226-49

<부록 2>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의 제목, 비평가, 전공 및 교수과목, 출전 목록: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교수신문』

장르	번역비평 텍스트 제목	비평가	전공 및 교수과목	출전
비 문 학	『국가』 <i>Politeia</i>	김귀룡(충북대)	서양고대철학	2005년
		이상인(연세대)	철학, 고전문헌학	11월 8일
	『정치학』 <i>Politica</i>	김주일(성균관대)	서양고대철학	2005년
	『시학』 <i>Poietike</i>	김 현(서울대)	고전그리스문학	11월 12일
	『군주론』 <i>Il Principe</i>	곽차섭(부산대)	서양근대사	2005년
	『로마사 논고』 <i>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e Tito Livio</i>	곽준혁(경북대)	서양정치사상	11월 19일
	『통치론』 <i>Two Treatises of Government</i>	정달현(영남대)	서양정치사상	2005년
		김성우(상지대)	서양근대철학	11월 28일
	『자유론』 <i>On Liberty</i>	허남걸(동국대)	윤리학	2006년
	『공리주의』 <i>Utilitarianism</i>	강준호(경희대)	윤리학	4월 4일
	『자본론』 <i>Das Kapital</i>	홍영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서양철학	2005년 12월 17일
	『미극의 탄생』 <i>Die Geburt der Tragödie</i>	박찬국(서울대)	철학	2006년 1월 2일
	『꿈의 해석』 <i>Die Traumdeutung</i>	이덕하(프로이트전문번역가)	『끝낼 수 있는 분석과 끝낼 수 없는 분석』, 『정신분석 입문』, 『꿈의 해석』번역	2006년 1월 9일

<부록 3> <번역을 짚어본다>, 『안과밖』의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서지정보

장르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비평가			
희곡	1	ST William Shakespeare. 1974. <i>The Riverside Shakespeare</i> , ed. G. Blakemore Evans. Boston: Houghtton Mifflin. TT 김재남. 1964/1971/1995. 『셰익스피어 전집』. 을지서적. 번역본 3정판 중심	서경희			
	2	ST Henry David Thoreau. 1989. "Walden, or the Life in the Woods," <i>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i> , 제 1권, 3판.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TT 강승영. 1994. 『월든』. 도서출판 이레. 양병석. 1995. 범우사.	조철원			
소설	3	ST Thomas Hardy. 1991. <i>Tess of the d Urbervilles</i> . London: Norton. TT 정인섭. 1974. 『테스』. 동서문화사. 이가형. 1987. 『테스』. 학원. 김용철. 1989. 『테스』. 을유문화사. 정병조. 1996. 『테스』. 중앙미디어.	김명환			
		4		ST D. H. Lawrence. <i>Sons and Lovers</i> . 1913. Penguin. TT 김재남. 1990. 『아들과 연인』. 해진서관. 1958:최초의 번역본 유영. 1988. 『아들과 연인』. 계몽출판사. 김정환. 1996. 『아들과 연인』. 육문사. 양병탁. 1976. 『아들과 연인』. 삼성출판사. 이혜경. 1997. 『아들과 연인』. 고려원.	유두선	
		5		ST Sculley Bradley & Harold W. Blodgett. <i>Leaves of Grass</i> . New York UP 1965; Norton 1973) TT 유종호 譯註. 1977/1991/1995. 『풀잎』. 민음사. 이창배 譯註. 1987. 『휘트먼』. 해원출판사. 1993. 『풀잎』. 해원출판사. 이영걸 譯. 1976/1990. 『19世紀 美詩』. 탐구당. 김기태. 1992. 『휘트먼 詩選』. 태학당.		강필중
				6		

장르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비평가
소설	7	ST George Eliot. 1960. <i>Silas Marner</i> . New York and Scarborough, Ontario: New American Librery.	한애경
		오화섭. 1984. 『싸일러스 마너』. 삼성출판사.	
		이승근. 1984. 『싸일러스 마너』. 학문사. 김승순. 1992. 『싸일러스 마너』. 창작과 비평사.	
	8	ST Jonathan Swift. 1961. <i>Gulliver's Travels</i> . New York: Norton.	김 번
		황동규. 1975. 『걸리버 旅行記』. 삼중당.	
		정병조. 1977. 『걸리버 旅行記』. 삼성출판사.	
		신현철. 1992. 『걸리버 여행기』. 문학수첩. 송낙헌. 1999. 『걸리버 여행기』. 서울대출판부.	
	9	ST Mary Shelley. 1985. <i>Frankenstein</i> . London: Penguin Classics.	김순원
		TT 정혜경. 신경숙. 1993. 『프랑켄슈타인』. 피피루스.	
	10	ST Herman Melville. 1967. <i>Moby-Dick</i> . New York: Norton.	김진경
		노희엽. 1954. 『白鯨』. 을유문화사. 축약본	
		양병탁. 1960/1995. 『白鯨』. 을유문화사/중앙미디어.	
		오국근. 1974/1980. 『모비딕』. 삼성출판사/태극출판사.	
		구중서. 1982. 『모비딕』. 시대문화사.	
		이가형. 1987. 『모비딕』. 동서문화사.	
		이승근. 1986. 『모비딕』. 삼성당.	
		현영민. 1993. 『모비딕』. 신원문화사. 박영식. 1994. 『모비딕』. 계몽사.	
	11	ST James Joyce. 1968. <i>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i> .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Viking Press.	이종일
		TT 홍덕선. 1997. 『젊은 예술가의 초상』. 문학과지성사.	
		이상옥. 2001.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12	ST V. S. Naipaul. 1979. <i>A Bend in the River</i> . London: Andre Deutsch.	왕 철
		TT 김영희. 1997. 『거인의 도시』. 강.	
		ST V. S. Naipaul. 1969. <i>The Mimic Men</i> . London: Penguin Books.	
		TT 정영목. 1996/2001. 『흉내』. 강.	
	13	ST Charles Dickens. 1987. <i>Oliver Twist</i> . Harmondsworth: Penguin.	이인규
		오석규. 1974. 『올리버 트위스트』. 휘문출판사.	
		정정호. 1990. 『올리버 트위스트』. 금성출판사.	
		TT 윤혜준. 1996. 『올리버 트위스트』. 창작과비평사. 박영의. 1996. 『올리버 트위스트』. 신원문화사.	
		ST Charles Dickens. <i>Hard Times</i> . 1987. Harmondsworth: Penguin.	
		TT 장남수. 1989. 『어려운 시절』. 푸른산(초판)	
장남수. 1994. 『어려운 시절』. 푸른산(개정판)			
박정만. 1996. 『힘겨웠던 날들』. 『크리스마스 캐럴』.			
ST 1996. 청목사. <i>Great Expectations</i>			
TT 최옥영. 1975. 『위대한 유산』. 삼성출판사. 김재천. 1988. 『위대한 유산』. 덕성문화사. 김태희. 1993. 『위대한 유산』. 해원문화사. 박성철. 1996. 『위대한 유산』. 문학과학실사.			

장르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비평가	
소설	14	ST	Charlotte Brontë. 1979. <i>Jane Eyre</i> . Harmondsworth: Penguin.	장정희, 조애리
		TT	샬롯 브론테. 정봉화 옮김. 1968. 『제인에어』. 정음사.	
			이근삼. 1960/1963. 『제인에어』. 을유문화사	
			이근철. 1974/1988. 『제인에어』. 삼성출판사.	
			오국근. 1981/1982. 『제인에어』. 금성출판사.	
			유종호. 1976/1980. 『제인에어』. 동화출판공사. 집중검토본	
			윤기호. 1982/1986. 『제인에어』. 학원사. 집중검토본	
	15	ST	Ernest Hemingway. 1995. <i>A Farewell to Arms</i> . New York: Scribner.	황정아
		TT	김병철. 1959/1987. 『무기여 잘 있거라』. 동아출판사/범우사.	
			정병조. 1964/1993. 『무기여 잘 있거라』. 을유문화사/글방문고.	
			이가형. 1979. 『무기여 잘 있거라』. 고려출판사.	
			윤종혁. 1975. 『무기여 잘 있거라』. 삼성출판사.	
			오국근. 1974/1995. 『무기여 잘 있거라』. 학원사/금성출판사.	
			설순봉. 1982. 『무기여 잘 있거라』. 주우.	
	박영의. 1994. 『무기여 잘 있거라』. 신원문화사.			
	16	ST	Tony Morrison. 1987. <i>Beloved</i> . New York: Alfred A. Knopf.	설준규
		TT	설영환. 1988. 『소중한 사람들』. 세종출판공사.	
			김선형. 2003. 『비러비드』. 들녘.	
		ST	Tony Morrison. 1992. <i>Jazz</i> . New York: Alfred A. Knopf.	
		TT	최인자. 1992. 『재즈』. 문학세계사.	
	김선형. 2001. 『재즈』. 들녘.			
	17	ST	Martin Gardner. 2000. <i>The Annotated Alice: The Definitive Edition</i> , Norton.	한혜정
		TT	손영미. 200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 시공주니어.	
18	ST	E. F. Bleiler. 1966. <i>Three Gothic Novels</i> . Dover.	신현욱	
	TT	하태환. 1998. 『오토란토 성』. 황금가지. 유일한 TT		
20	ST	Paul Auster. 1990. <i>The New York Trilogy</i> . New York: Penguin.	유정완	
	TT	한기찬. 1996. 『뉴욕 삼부작』. 웅진출판.		
		황보석. 2003. 『뉴욕 3부작』. 열린책들.		

<부록 4> 「교수신문」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의

순서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비평가
①	ST	존 버넷. 1902. <i>Politeia</i> .	김귀룡
	TT	박중현 역주. 1997(초판). 『국가 정체』. 서광사.	
	ST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저본	이상인
		슐라이어마허. 독일어 번역본	
		Paul Shorey. 1930년대 중반. 영역본	
		F. M. Cornford. 1941. <i>Politeia</i> .	
S.R. Slings. 2003. <i>Politeia</i> . Oxford.			
TT: 추천본	박중현 역주. 2005(개정증보판). 『플라톤의 국가. 正體』. 서광사		
②	ST	아리스토텔레스. <i>Politica</i> . 그리스어 저본	김주일
		영어번역본	
	TT	성인기. 1948. 『정치철학』 중역본	
	ST	Benjamin Jowett 영역본	
	TT	이병길, 최옥수. 1959. 『정치학』. 박영사. 중역본	
	ST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어	
	TT	김완수, 천병희. 1972. 『정치학』. 휘문출판사. 원전번역본	
ST	E. Barker. 영역본		
TT	나종일. 1979. 『정치학』. 삼성출판사. 중역본		
③	ST	<i>Poietike</i> 회답어 저본	김 현
	TT	손명현. 1960. 『시학』. 박영사.	
		천병희. 1976. 『시학』. 문예출판사.	
	ST	바키 영역본.	
TT: 추천본	나종일. 1979. 『시학』. 삼성출판사. 중역본		
④	ST	마키아벨리. <i>Il Principe</i> . 이탈리아 원전	곽차섭
		최숙형. 1958. 『군주론』. 신생문화사.	
	TT	한상범(정음사, 1970), 신상초(하서출판사, 1972), 임명방(삼성출판사, 1972), 이상두(범우사, 1975), 백상진(박영사, 1976), 황문수(동서문화사, 1976), 신복룡(을유문화사, 1979), 강정인(까치 1976), 김영국(서울대출판부), 1995, 박영기(금성출판사 1987), 허문순(일신서적 1987), 송우(여명출판사 1992), 신윤곤(배제서관 1997), 정영하(산수야, 2005), 권혁(돋을새김, 2005), 사회과학연구회(신조문화사 1961), 최종목(상서각 1976) : 모두 중역본	
	추천	스키너 & 프라이스. 캠브리지대. 영어 번역본. 강정인. 1994(초판)/2001(개정판) 『군주론』. 까치. 중역본	
⑤	ST	<i>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e Tito Livio</i> . 이탈리아 원전	곽준혁
		신상초. 1982. 『로마사 논고』. 양우당.	
	TT	황문수. 1976. 『로마사 논고』. 동서문화사.	
		강정인, 안선재. 2003. 『로마사 논고』. 한길사.	
추천본	강정인, 안선재. 2003. 『로마사 논고』. 한길사.		
⑥	ST	로크. <i>Two Treatises of Government</i>	정달현
	TT	임성희. 1972. 『통치론』. 휘문출판사.	
		이극찬. 1976. 『통치론』. 삼성출판사.	
추천본	강정인. 문지영. 1996. 『통치론』. 까치.		
⑦	ST	로크. <i>Two Treatises of Government</i>	김성우
	TT	정달현. 1992. 『재속권력론』. 중문출판사.	
		정달현. 1988. 『자연법론』. 이문출판사.	

순서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비평가
⑧	ST	J. S. Mill. 1977. <i>Essays on Politics and Society</i> . University of Tronto Press.	허남결
	TT: 추천본	김형철. 1992. 『자유론』. 서광사.	
	ST	C. V. 1982. <i>On Liberty</i> .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TT: 추천본	서병훈. 2005. 『자유론』. 책세상.	
⑨	ST	<i>Utilitarianism</i>	강준호
	TT	이윤상. 김수정. 2002. 『공리주의』. 이문.	
⑩	ST	K. Marx. <i>Das Kapital</i>	홍영두
	TT	전석담, 최영철, 허동. 1947. 『자본론』. 서울출판사. 일어중역본	
		김영민. 1987. 『자본론』1. 이론과실천. 원전번역	
		강신준. 1989-90. 『자본론』2, 3권. 이론과실천. 원전번역	
추천본	김수행. 1989-90. 『자본론』전3권. 비봉출판사. 영역본, 일역본, 북한판을 원전으로 삼음		
⑪	ST	<i>Die Geburt der Tragödie</i> 독일어판 . 암파(巖波) 문고판. 일어판	박찬국
	TT	박준택. 1976. 『비극의 탄생』. 박영사. 중역	
	추천본	김대경. 1982. 『비극의 탄생』. 청하. 중역	
⑫	ST	<i>Sigmund Freud. Die Traumdeutung</i> 독일어판 <i>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i> 영역판	이덕하
	TT	김기태. 1988/2002. 『꿈의 해석』. 선영사. 원전 번역	
		김양순. 1991. 『꿈의 해석』. 일신서적. 원전 번역	
		장병길. 1983. 『꿈의 해석』. 율유문화사. 원전 번역	
		서석연. 1992/1996. 『꿈의 해석』. 범우사. 원전 번역	
추천본	김인순. 1997/2003. 『꿈의 해석』. 열린책들. 원전 번역 조대경. 1993. 『꿈의 해석』. 서울대출판부. 원전번역		

<부록 5> 『문화의 오역』의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서지정보

장르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비문학	①	ST	Ovid. <i>Metamorphoses</i> . Oxford. UK. 라틴어 저본
		TT	메어리 이니스. 1995.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 <i>The Metamorphoses of Ovid</i> ). 펄컨 북스. 영국 런던.(영어 번역판)
			田中秀央, 前田敬作 공역. 1984. 『轉身物語』. 人文書院. 일본 교토.(일본어 번역판)
	TT	오비디우스. 이윤기 옮김. 1998. 『변신이야기』 <sup>8)</sup> .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1.2권. 민음사.	
	②	ST	Umberto Eco. 1980. <i>The Name of the Rose</i> .
		TT	움베르토 에코. 이윤기 옮김. 1992. 『장미의 이름』. 열린책들.
	③	ST	Jung, So-sung. Lee, Bo-kyung(translator). 2000. <i>The Ship Bound for Athens</i> . in <i>KOREAN Literature Today</i> . Vol. 5, No.1. Spring, 2000.
		TT	정소성 지음, 이보경 옮김. 1990. 『아테네 가는 배』. 고려원.

8) 『변신이야기』에서 번역가는 라틴어 저본이 아닌 영역본과 일역본을 동시에 참고하여 한국어 번역을 하였다. 이 경우는 다음에 다루게 될 ‘중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ST에서 파생된 두 언어로 번역된 TT를 한국어 번역 시 원



## &lt;부록 6&gt; 『잔혹한 책읽기』의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서지정보

장르	번역비평 분석대상 텍스트	
비 문 학	①	ST Nigel Spivey. <i>Greek Art</i> . London 1997.
		TT 나이즐 스피비. 양정무 옮김. 2001. 『그리스 미술』. 한길아트.
	②	ST Thomas H. Carpenter. 1991. <i>Art and Myth in Ancient Greece</i> . London.
		TT 토머스 H. 카펜터. 김숙 옮김. 1998. 『고대 그리스의 미술과 신화』. 시공사.
	③	ST Robert Mark. 1994. <i>Architectural Technology up to the scientific revolution</i> .
		TT 로버트 마크 외. 김태중, 조형래 공역. 1999. 『서양건축기술사』. 경남대학교출판부.
	④	ST Joseph Campbell. 1964. <i>Occidental mythology</i> (The Mask of God, Vol.III).
		TT 조지프 캠벨. 정영목 옮김. 1999. 『신의 가면III-서양신화』. 까치.
	⑤	ST Daniel J. Boorstin. 1993. <i>The creators: the history of heroes of the imagination</i> .
		TT 다니얼 J. 부어스틴. 이민아, 장식봉 옮김. 2002. 『창조자들』(1권). 민음사.
	⑥	ST Joseph Campbell. 1972. <i>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i> .
		TT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1972.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별적 비평’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 Paradigms of Translation Criticisms

Jeon, Hyunju

(Keimyung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mp; Transl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elements required in form and content paradigms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Translation Criticisms(TC's), grasps what critics notice as they qualify the acceptability of Target Texts(TT), and suggests a kind of guideline for translation criticism policies and their assessments. The selected TC's have been screened according to several standards such as authenticity, durability, and activeness of critics, journals, and publications. And also, having TC's genre(literature and non-literature), Source Language(English and Korean) and Target Language(Korean and English) and the category of TC's in mind, the writer has adopted texts such as *In/Out" English Studies in Korea*(『안과밖』), *Kyosu Newspaper*(『교수신문』),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Modern Korean Translated Literature* (『한국현대번역 문학사 연구』), and other major sources. Analysed the TC's, this study suggests form and content paradigms of TC's as follows, and attempts to verify their validity, reliability and objectivity.

There are two kinds of criticisms: 'self-criticism' and 'others'-criticism', which are specified into the various aspects of TC's. For example, in terms of common factors, the form paradigm of TC's consists of subject, object, medium, and recipient of criticisms(See Table 2-1). And as the object of criticisms is concerned, there are four kinds of TC category: 'individual', 'collective', 'comprehensive', and 'TT-oriented'. The category of TC plays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constructing the body and core of TC. Next, considering the content paradigm of TC's, four kinds of TC category have the

distinctive features by the ways of comparing ST(s) with TT(s), their assessment criteria and items in TC's: First, the ways of comparing ST(s) with TT(s) in TC's are wide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mode of the four factors of person, time, text, and language(See Table 2-2). Second, the assessment criteria has different aspects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TC's group and 'comprehensive' TC's group. The one is evaluated by its genre, directional text, and the goal of translation, and the other is traced by times, language, genre, author, translator and the like(See Table 2-3). And finally concerning to the assessment items for TC's, acceptability are filtered in the means of 'extra-text's elements' and 'intra-text's elements'(See Table 2-4) by critics. In the case of the 'collective' TC's, however, it has some evident limitation which can not approach the intra-text's elements properly, so critics notice the imbalanced phenomena of the power between major and minor language, genre, author, translator groups in synchronic and diachronic prospects individually.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encourage and direct translators as critics including professionals and amateurs and vice versa to equip themselves with effective translation strategies. By the same tok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ranslation Studies, making the measurement grids for filtering TT's acceptability, establishment of the effective and practical paradigms of form and content for TC's can dedicate toward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ranslation quality management. Accordingly, with regard to the role of public recognition tools to endow TT's with their acceptability, TC's checkpoints and critics' views proposed above are conversely translated and should be adapted as translators' essential guideline.

▶ Key words: paradigm of translation criticism, acceptability, translation critics, translator, polysystem, translation strategies

전현주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transju@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비평가 평가, 번역과 후기식민주의, 다중체계 이론, 기능주의 이론, 코퍼스 번역학

논문투고일: 2008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3월 8일